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운곡서원 창건과 죽림공 신원에 일생을 걸었던 갈산공의 생애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사람들 저자

갈산공(葛山公 휘諱 종락宗洛 좌운공과 31세 1745~1819)은 영의정 권대운(權大運, 1612~1699, 숙종 재위(在位)도, 영남관찰사 권혁(權懌, 대사헌, 이조판서) 후손도 이루지 못한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창건했다.

갈산공은 영조 21년(1745, 을축년乙丑年)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서 태어나셨다.

자는 명응(明應) 호는 갈산(葛山) 또는 형아(兄窩)다. 갈산공은 모부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풍도(風度, 풍채와 태도)가 괴위(魁偉, 크고 아름답다)하고 광박(宏博, 넓고 광대하다)해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삼시간에 그 소문이 경주부(慶州府)로 퍼졌다고 한다.

큰일을 한 인물로 하늘로부터 예시를 받았다고 했다. 풍도가 괴위, 광박했던 것처럼 학문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고 행실이 곧고 학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정조 9년(1785, 을사년乙巳年) 나이 40 살 때 문중과 경주사림을 움직여 시조 태사공을 배향할 운곡서원과 추원사(追遠祠) 창건 주찬(主贊)을 맡아 신건(神建)의 기적을 만드셨다.

정조 13년(1799, 기유년己酉年)엔 공의 12대조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단종의 이모부, 사육신의 난 때 순절)의 신원(伸冤, 원통한 일을 풀다)이 이루어져 관직이 회복되고 가증 교지를 받아냈다. 후인들은 천청(天聽, 제왕이 들음, 하늘이 받아줌)이 감동해서 죽림(竹林)공의 신원이 회복 되었다고 했다.

갈산공은 빼어난 문인 간옹(甘翁) 이헌경(李獻慶)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조선의 명재상이었던 변암(樊巖) 체제공(蔡濟恭 1720~1799)과 이조 예조판서 대제학이었던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했던 이름난 선비이었다.

일세(一世)를 오직 숭모(崇慕), 학문으로만 살았던 갈산공은 기묘년(己卯年, 1819) 12월 11일 시상(詩喪)의 무대가 된 갈산(葛山) 팔영(八詠)과 이웃한 지금의 경주시 강동면 왕신 3리에서 생을 놓으셨다.

세수 75살. 생전에 자주 찾았던 갈산팔영(葛山八詠)이 내려다 보이는 산록(山麓)에 묘소를 썼다. 운구(運柩)가 산허리에 도달했을 무렵 공이 심었던 운곡서원 암각수(鳴鶴樹) 노란 잎이 바람에 날려 분분에 떨어졌다.

운곡서원과 묘소까지 2km가 넘는 거리였다. 1789년 정조로부터 받은 죽림공 신원(伸冤) 교지를 예전 피아골 산소에서 분황(焚黃) 때처럼 이적(異蹟)이 나타났다. 후인들은 갈산공의 숭모정신이 하늘에 닿아 나타난 이적(異蹟)이라고 했다.

고종 36년(기해己亥 1899)에 발간된 유고(遺稿) 갈산집(葛山集)에 실린 기록을 보면 경주부(慶州府) 유생(儒生)과 문우(文友), 문신(文臣)들이 초종(初終)부터 3년 상(喪)을 나는 날까지 보낸 만사(輓詞, 죽음을 애도하는 시조)와 제문(祭文) 20편을 포함 백여장이 빈소(殯所)에 올려졌다고 했다.

장례가 끝나서도 경주부 강동면 왕신 3리(사라舍羅) 산허리에 써진 묘소를 직접 찾아 술과 만사를 올리는 선비들이 이어졌다.

<진사進士 이희국李熙國의 만사輓詞>

名家詩禮有賢孫 명가시예유현손
시례의 명가 집에 훌륭한 자손이시여
輦路冤金感至尊 련노원금감지존
임금님 행차 앞에 징을 쳐서 감동하시게 하고

風動竹林千古節 풍동죽림천고절
죽림선생의 위대한 절의를 세상에 알렸으며
春回鳴樹百年根 춘회암수백년근
백년이 지나서 돌아온 은행나무를 갖다 심었으니
洛中識面皆簪紱 낙중식면개잠불
서울에서 출세한 분들 만나서 성취하시었고
嶺下知名遍巷村 령하지명면향촌
영남에는 온 향리의 많은 분이 지인들이시네
望八光陰非不壽 망팔광음비부수
팔십년 살아온 세월 짧은 것 아니지만
泉臺此別派盈樽 천대차별누영준
황천으로 떠나는 이 작별에 눈물이 흐르네

<진사進士 남봉양南鳳陽의 만사輓詞>

風儀辭令似公誰 풍의사령사공수
뛰어난 풍채와 말솜 누가 공 같을 수 있겠습니까
先德揄揚自有時 선덕유양자유시
선대의 미덕을 드러내는 일은 때가 있었네
暇日止滯多少話 가일지연다소화
지연[止滯]에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通霄雲谷唱酬詩 통소운곡창수시
운곡[雲谷]에서 밤을 지새우며 시를 화답했는데
每言做事無難易 매언주사무난역
늘상하는 말솜 쉽고 어려운 일이 따로 없지만
却恨臨衰久別離 각장림쇠구별리
늘어가면서 오랜 작별 참으로 슬프다고 하셨네
巨耐傷心知舊淚 과내상심지구누
친구를 보내면서 괴로움을 참기 어려움 눈물은
炙花時節送靈輜 자화시절송령랑
꽃떡을 굽는 계절에 상례[喪輿]를 보내는 일일세

<경주유학慶州幼學 손정구孫禎九의 조의제문弔義帝文>

嗚呼尊靈，花山顯麗，竹林玄貞，魁梧氣質，軒爽神秀，瞻波雲谷，惟公藏修，林壑改觀，卓節開閭，志氣牢確，何事不做，事無難易，到老不惰，是以宗族，恃公棟樑，小子景仰，自異他人，先人姬堉，兼以親戚，往來源源，契誼尤摯，嗟公乘化，槐火再改，儀形永祕，鷄綿尚稽，今日一哭，靈庶默恕。

아! 공께서는 안동권씨의 드러난 문벌이시고 죽림공의 먼 후손이시며 장대한 기질로 환절하고 상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운곡을 바라보니 잠드신 곳이어서 산전이 달라 보입니다. 뛰어난 기상으로 깊은 생각을 가졌고 의지가 확고했으니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일이 어렵고 쉬운 것을 떠나서 늙도록 부지런히 하시기에 종족이 공을 기동으로 믿었고 우러러 존경하면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선인[先人]께서는 동서간[同鄉間]이고 또 친척이어서 자주자주 서로 왕래 하시면서 우의가 더욱 돈독했습니다. 아! 공이 세상을 뜨시고 괴화[槐火]가 두 번이나 바뀌었으니 모습이 영영 떠나시었습니다. 뒤늦게 닭과 술에 적신 술로 오늘 곡을 하게 되었으니 공께서는 많았이 용서해 주십시오

만사(輓詞, 죽음을 애도하는 詩)나 조의제문은 그 시대의 삶과 선비의 정신이 묻어나는 대표 문장들이다. 갈산집에 실린 만사나 제문엔 그 시대를 살았던 조선(祖先)들의 넉넉한 마음이 문장 속에 들어있었다. 허겁지겁 속도를 내는 지금 세대들과는 달리 정과 존엄(尊嚴) 예절이 담긴 조문(弔問)하고 그 시대 최고 문장체로 지어진 만사(輓詞)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올렸다.

갈산공 노봉서원魯峯書院 배향

갈산공이 집성촌 국당(菊堂)에서 사라(舍羅)리로 옮겨 왔을 때 운전 좌우 임야 80만 평과 벼 500석을 거두는 부농(富農)이었다. 운곡서원 창건 시기, 공이 가졌던 80만 평 임야는 생전에 삼등분을 해서 시조와 죽림공, 귀봉공을 배향하는 운곡서원 수호 임야로, 또 임향조 관관공의 문중과 자신의 후손들이 가질 임야로 나눴다. 상소문이나 편지와 함께 보낸 반간물(선물)도 엄청났다. 상소문과 서원 창건을 위해서간문을 주고받은 문신과 유생이 500명이 넘었다. 편지마다 동해안 명품 돌김 한속(100장 단위로 묶음)을 반간물(伴簡物)로 같이 보냈다. 초겨울부터 갯바위에 붙어 자라는 돌김 한속엔 지금도 30만 원이 넘으니 나락 10센 가마값을 더 주었을 것. 운곡서원을 창건하고 12대조 신원(伸冤)에 술한 세월에 썼으니 살림이 거덜 날법 했었지만 사후까지 지팡이 된 것을 보면 당시 경주부(慶州府)에서 살림살이가 싹하고 문중의 뒷받침이 탄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배위(配位)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후손이신 여주이씨(驪州李氏, 부휘父諱 원중元中)이시다. 갈산공은 사후 182년 만인 2001년 예천사림(醴泉士林)의 발의로 죽림공을 모신 노봉서원(魯峯書院)에 배향됐다.

운곡서원을 구한 갈산공 증손 망운재공의 위선지심

운곡서원은 경주의 후손들이 열심히 지켰지만 고종 5년(1868, 무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넘지 못했다. 훼철(毀撤)시기에도 후손들은 위판(位版, 위패)을 동산에 묻고 제단(祭壇, 고종 28년 1891) 쌓아 향사(享祀)를 받들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는 어려운 시기에도 단소(壇所)에서 3월 초정일(初丁日)을 그냥 보내지 않았었다.

훼철보다 더 큰 수난은 승려들이 폐사지의 흔적을 근거로 경주군 형리와 짜고 벌인 송사로 서원 유사(위諱) 의일(一, 갈산공의 증손曾孫)가 감옥살이를 했었다. 사찰 터라면서 땅값을 요구했던 시비는 경남 양산 통도사 승려(고산古山)와 1901년 불국사 승려(경오景鰲, 치정致政)가 합세, 유사(권의일權宜一 34세)에게서 1,300냥을 뜯어갔다.

1901년(광무 5년) 통도사(通度寺) 승려(고산古山)가 벌인 송사(訟事)는 두 해나 걸려 승소했다. 당시 사찰 측과 가까웠던 경주군수 김윤란(金允蘭)이 유사 망운재공(望雲齋公, 1841 휘諱 의일一 34세, 갈산공 증손/휘諱 지영致榮 손자孫子/휘諱 봉은鵬運의 계자)을 구속 시키자 경주부 등 전국 종중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참판 권응구(權應圭), 찬정 권재형(權在衡)이 나서 단유굴변(壇遺掘變, 무덤이나 단을 파내는 극악한 행위) 사건을 항의하는 정단(呈單, 서류를 관에 제출)을 내무부에 보냈다.

광무(光武, 대한제국 고종 황제 연호) 6년(1902) 8월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가 영남관찰부에 내린 훈령에 따라 관찰사 조기하(趙耆夏) 공은 즉시 이범식(李範錫) 영전군수를 2심 조사관으로 파견시켰다. 경주군 형리(김상구)와 승려 경호는 즉시 구속되고 훼손한 한 승려 치정과 고산은 도망갔다. 경주군수 김윤란은 벌봉(罰俸) 1개월의 처분이, 통도사 승려 고산(古山)은 절간에 평생 갚아야 하는 사찰이 추가로 내려졌으며 서원 수호유사 망운재공(권의일權宜一)에게 뜯어갔던 1,300냥도 내놓게 됐다.

당시 대한제국 군부대신으로 내각에 있었던 권중현(權重顯 1854~1934, 후일 농상공대신으로 을사오적이 됨)이 운곡서원 송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당시 망운재공을 비롯 권재운(權在運,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권규운(權圭運, 진사進士) 등 배향위 후손들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운곡서원은 더 큰 수난을 당했을 것이다. 망운재공은 이밖에도 갈산공의 유사(遺事)를 간행하는 등 위선지심(爲先之心)이 컸다.

국포공(菊圃公, 휘諱 숙영肅永)

자는 찬여(贊汝) 호가 국포(菊圃) 또는 운보(雲圃)이시며 망운재공의 생가 조가가 된다.

국포공 역시 풍모와 생각이 영위(穎偉, 빼어나고 훌륭한)하고 위선지심(爲先之心)이 선대를 배앓았다는 평을 들었다. 운곡서원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화수가 <3>

그 부인 유씨께서 순절殉節 시제 찾아가서
구지부득求之不得 초혼招魂하여 가산후家山後에 펴장窆葬하고
군부설치君夫雪耻 못한 여한妬恨 구일불식九日不食 열사烈死하니
충열표장忠烈表彰 단계사丹溪祠에 묘향백세 하옵시며
그 자손이 세거하며 전곡前谷에 거주족은
북아파僕射派에 지명공 持平公이 신녕주곡임향후 新寧椒谷入鄉後에
그 자자子孫에 분지 分枝하여 이곳으로 거주하고
남두동南杜洞에 거주족居住族은 매현공梅軒公의 자손子孫이라
귀봉공의 자자子孫으로서 혼도유생訓導儒生하시오며
임난창의 훈공이며 선양노모養老母 효성孝誠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 증직贈職이요 충효겸전忠孝兼全 정려 旌閭모다
두동杜洞의 옥연사玉淵祠에 묘향백세 하옵시며
그 자손이 세거하고 내남월산內南月山 거주족은
구사제의 자손이요 내동평리內洞坪里 거주족은
향일제의 자사이다 사형제분四兄弟分 분문分門하니
제이第二에는 연일상원延日上院 제삼第三에는 장기언양長義陽陽
제사第四에는 사곡평寺谷坪 외동임실外洞入室 거주족은
추밀파樞密派에 지제후 止齊後다 선조조宜祖朝에 잠계공潛濟公이
이곳을 입향入鄉한후 잠심강학潛心講學하시오며
통정대부通政大夫 노직老職이라 그 자손이 세거하고
덕동德洞에 거주족은 매와공梅窩公의 자손이요
동해구길東海九吉 거주족은 추밀파의 지제후라
선조조宜祖朝에 동은공東隱公이 동도자동 東都之東 은거隱居하여
강학명륜講學明倫 사적事蹟이라 그 자손이 세거하고
시조태사始祖太師 유방지택遺芳之澤 기려불억其麗不億 그 자손이
팔도강산八道江山 포호布護하니 각파서택各派世德 다말하면
청천장지靑天丈紙 부족不足이요 경주지방 거주족도
약설세대 略說世德말지더다 오홇다 화수족花樹族아

권행안 편집국장
(다음호에 계속)

수난 땀 숙부(망운재공望雲齋公)을 따라 육력(戮力, 죽을힘을 다하다)을 다해 정장(呈狀, 소를 내다)을 전국에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1923년(癸亥)엔 선대 구사제(九思憲, 휘諱 복시復始 임란의병장 24세)를 창건했다. 1935년 들어서는 경북 청도 운문(雲門) 2世 시조 남중공 설단과 제사를 세우는데도 크게 도왔다. 기축년(己丑年, 1949)에 하세(下世) 하셨다.

준여공(俊汝公, 휘諱 숙도肅道)

갈산공의 현손(淮諱 숙도肅道 1901~1972)은 1967년 안동권씨 15개 과 후손들이 모두 책록된 목판본 족보에서 1967년 좌운공과 후손들만 책록된 후빙미보(後丁未譜, 7책 한질) 독립 발간 편집인을 맡았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후손들을 대상으로 수단(收單), 족보(族譜, 7책七冊) 발간을 두 해 만에 마무리 지었다. 보소(譜所, 족보를 만들기위한 임시사무소)는 운곡서원, 발행처는 안동 연원재였다.

서원 묘우(廟宇) 경덕사 경내에 심어진 백일홍 3그루도 1967년 족보 발간 기념으로 심어 지금의 노거수로 자랐다.

우물 옆 괴목(槐木, 회화나무)과 경덕사 뒷산 향나무, 고택 옆 모과나무, 동산 느티나무 역시 권숙재(權肅載) 권혁진(權赫震) 권혁종(權赫鍾, 갈산공의 5대손) 권오섭(權五燮) 권보도(權甫道) 권병술(權柄述) 후손이 심은 사실이 고왕록 기록에서 확인됐다.

갈산공이 소유했던 80여만 평 임야를 삼등분, 가장 좋은 묘은 운곡서원에 봉상하고 남은 임야는 국당 문중과 직계 후손에게 나눠줬을 만큼 큰마음을 지닌 사대부였듯이 망운재공, 국포공 준여공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걸 역시 위선지심(爲先之心)을 이었다.

<자료출처: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동경지족림실기東京誌竹林實記, 안동권씨좌운공파보安東權氏佐尹公派譜,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예천읍지醴泉邑誌, 갈산집葛山集, 보목유취寶墨遺帖>

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

행복한 여행의 시작과 끝을 공항리무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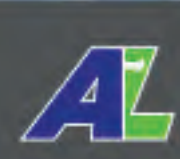




컨템포리브



인천공항 전경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문의 (☎) 2664-9898, (야간)2665-1094
http://www.airportlimousine.co.kr